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 1사무 3,3ㄴ-10,19

화답송 | 시편 40(39),2ㄱㄴ과4ㄱㄴ,7-8ㄱㄴ,8ㄷ-9,10(◎ 8ㄴ과9ㄱ 참조)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거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 1코린 6,13ㄷ-15ㄱ,17-20

복음화송 | 요한 1,41,17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 요한 1,35-42

영성체송 |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신부님,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신자들의 단골 질문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께 배웠던 모범답안에 따르면 ‘기도란 하느님과 대화’입니다. 먼저 우리의 대화를 떠올려봅시다. 대화란 듣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로 구성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남 없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거나 성급히 판단해 본래 뜻을 왜곡한다면, 의사소통은 오해를 낳기 마련입니다. 하느님과 대화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면, 기도라는 이름의 배는 ‘분심’의 풍랑 속에 빠져 길을 잃고 엉뚱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제1독서(1사무 3,31-10,19)에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익숙하지 않던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 “저를 부르셨지요?”라고 묻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자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눈치챈 엘리는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그제야 사무엘은 주님의 부르심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그분과의 대화, 곧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배웁니다.

복음(요한 1,35-42)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묵었던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인데, 안드레아는 형에게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아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그분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 등장인물(세례자 요한, 그의 두 제자, 베드로)이 각각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러 과정을 거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고, 말한 것을 들으며, 듣고 본 것을 다른 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 내용을 또 다른 이가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이처럼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올바르게 듣는 것과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뉘드리하거나 소원하지는 않으십니까?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말을 많이 해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임을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도 배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느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충분히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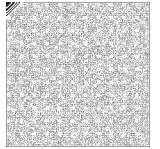
리마, 페루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요한 1,36)

맨발의 수도사가 절벽 위에 선 채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 무거운 번민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쉬이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느님의 범주와 세상의 경계에서 고뇌합니다. 오늘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 청년밥상 문간 대표

와서 보아라

2017년 12월에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해 겨울은 지독하게 추웠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등 그야말로 혹한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식당을 열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것이 제게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수도원에서 아침기도와 미사를 마치면 부랴부랴 출근하여 청소부터 시작하여 9시에 문을 닫고 수도원에 돌아오면 지쳐서 킁아떨어지기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역시 반복되는 일과. 식당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건강엔 소홀하면서 입만 털며 살아온 시간에 대한 대가였죠.

해를 넘겨 2018년 새해를 맞아 피곤에 젖어 있을 때쯤 생활성가 가수인 알렉시우스 형제님께서 아들 예담이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청년밥상 문간’ 소식을 들으시고 응원차 오셨던 것입니다. 예담이에게는 미리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던 모양입니다. 예담이는 1년 동안 소중하게 저축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서 식당에 써 달라며 기꺼이 기부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1년 동안 모은 것이니까요. 저는 정말 놀랐고 불끈 힘이 솟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운영하는 동안 내내 많은 은인들께서 도와주셨지만 예담이는 그중에서도 최연소 기부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예담이, 예담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신 부모님.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선한 씨를 뿌리신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피곤 따위 날려버리고도 남을 아름다운 마음들을 마주하노라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식사하러 오신 자매님께서 계산을 하시면서 그때 식사 중이었던 모든 청년들의 음식값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자식으로 두셨을 법한 그분께 식사

하는 청년들이 모두 아들 같고 딸 같았을 겁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청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어머니 한 분이 여기 모든 청년들의 식사비를 치르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들 어찌나 고마워하던지요…. 어떤 청년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식사비를 내실 수 있냐며 감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으로 더 나은 기부 방법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식당이나 청년들을 위해 써 달라며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저희 식당에 오시어 식사도 하시고 청년들을 위해 골든벨을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청년들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갈 거라 믿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청년밥상 문간’은 상당히 저렴하니까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녁에 오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청년밥상 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고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곳이지요. 그래서인지 오시는 분들이 다들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
괴는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사랑은
이웃의 얼굴로 다듬어진다

정혜윤 프란치스카 | 신수동성당

한국천주교회의 두 기둥 김대건·최양업 신부님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선포와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가톨릭 성가 291번에는 “교회의 반석 성 베드로와 선교의 주보 성 바오로는 신앙을 위해 순교하시고 승리의 관을 받으셨도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교회의 두 기둥에 베드로·바오로 사도가 계시다면, 한국교회에도 두 대들보 김대건·최양업 신부님이 계십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한국의 첫 사제로서 ‘피의 순교’로 한국교회의 제대를 축성해주셨고, 최양업 신부님은 11년 6개월간의 사목 생활인 ‘땀의 순교’로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1821년에 태어나서 15살 소년의 나이로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신사(辛巳, 1821년 흰뱀白蛇띠의 해)년 3월 1일이 최양업 신부님의 생일이고, 8월 21일이 김대건 신부님의 생일이므로 동갑이지만 최양업 신부님이 조금 더 형이었겠지요.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에 의하면 이 둘은 먼 친척이 됩니다. “이존창의 집안이 처음에는 모르고서 가짜 사제를 냈으나 나중에는 진짜 사제를 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의 딸 이 멜라니아는 김 안드레아 신부의 조모이고 이(성례) 마리아는 이존창의 사촌 누이 멜라니아의 조카딸입니다.”(1851.10.15.편지)

위의 인용문 중에서 ‘가짜 사제’란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가성직제도’를 가리키는데, 이존창은 내포 지역에서 성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 모두 어머니 쪽으로 ‘하느님의 종’ 이존창과 연결됩니다.

이 뜻깊은 해에 두 분 삶의 중요한 대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의 삶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

러납니다.

김대건(大建)은 ‘크게 세우다’는 뜻으로 첫 사제로서 선교사들의 바닷길을 개척하고 자신은 순교로 한국교회를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정말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묵상할 주제는 적응, 성장통, 여행(모험), 용덕, 순교입니다.

최양업(良業)은 서품 후 국내에 들어오셔서 11년 6개월 동안은 발로 뛰며 선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목 생활 자체가 참으로 말 그대로 ‘선한 업적’이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할 주제는 성실함, 배려, 열정, 성사, 최선을 다함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 무엇을 세울 것이며, 어떠한 업적을 남길지 생각해 봅시다. 13개월간 사제생활을 했던 26세 청년 김대건의 마지막 소망을 되새겨봅시다.

“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
잘 있게.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나의 어머니 (고) 우르술라를
특별히 돌보아 주도록 부탁하네.
저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묵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형벌을 끝까지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감옥에서 쓴 라틴어 친필 서한 중 마지막 대목 —

”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월 18일 박항영 프란치스코 신부(38세)
- 2004년 1월 23일 김정진 바오로 신부(82세)
- 2009년 1월 23일 홍인수 세례자요한 신부(67세)
- 2019년 1월 19일 장홍선 요셉 신부(81세)

서울주보 알림 신청: <http://cc.catholic.or.kr>

프란치스코 교황 ‘성 요셉의 해’ 선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보편 교회의 수호자 성 요셉 선포 150주년을 맞아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Patris corde)를 반포하고 교서를 통해 1년을 성 요셉의 해(2020년 12월 8일~2021년 12월 8일까지)로 선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드러나진 않지만 매일 인내의 삶을 살고 공동 책임의 씨앗을 뿌리면서 희망을 키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를 겪으면서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셉 성인이야말로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고 드러나지 않게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자 구원 역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성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요셉의 해 전대사는 바티칸뉴스(www.vaticannews.va/ko) 참조>

① 사랑받는 아버지 ② 온유한 아버지 ③ 순종하는 아버지

요셉은 그의 삶을 봉헌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구원의 역사에서의 그의 역할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성인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껴안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온유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순종’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구했고, 이를 통해 요셉은 아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모범을 가르쳤습니다.

④ 받아들이는 아버지

요셉의 영성적 삶의 길은 ‘설명하는 길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 성인이 수동적 인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용기 있고 강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으로 가득한 굳셈이라는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그는 모순되고 예상할 수 없으며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 성인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⑤ 용감하고 창의적인 아버지

요셉은 세상의 다른 모든 가정들처럼, 특히 많은 이주민들이 겪는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수와 마리아의 보호자인 요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보호자입니다. 성인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가난한 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⑥ 노동하는 아버지

성실한 목수 요셉은 우리에게 노동의 결실로 얻은 빵을 먹는 기쁨과 노동의 존엄 및 가치를 가르칩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느님의 창조 작업에 협력합니다. 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뉴노멀(New Normal)’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젊은이도, 어떤 가정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노동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⑦ 그림자 속의 아버지

예수님에게 요셉은 이 땅에 드리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하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랑할 줄 알았으며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남을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참된 아버지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고 오히려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아버지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더 높은 차원의 부성애로 나아가는 표지입니다.

출처: 바티칸뉴스 | 요약정리: 황중호 베드로 신부(문화홍보국 차장)

교구청일력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안치룡’

때: 매월 셋째주(화) 1월19일 오전 11시(159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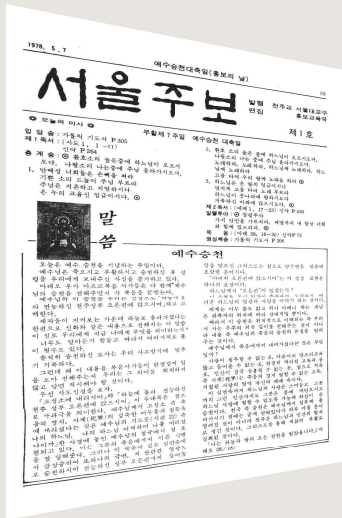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1월13일(수)~2월2일(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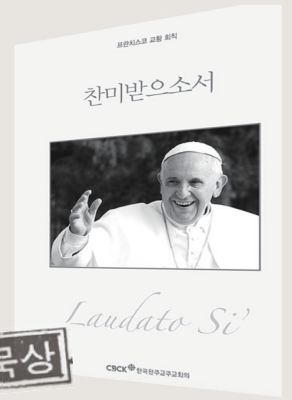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응답하라 1978



환경문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물의 묵상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우리의 집,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중에서)

조선 후기의 풍자적인 인물, 봉이 김선달에 관한 이야기는 어렸을 적 한 번은 들어 봄 직한 이야기죠? 어린 시절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재미있고, 당시 사회를 풍자한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을 사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공기처럼 흔한 물을 돈을 주고 마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해외여행이 어렵던 1970~80년대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유럽에는 맥주보다 물이 더 비싸다고 했을 때 어디 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죠. 1974년 개봉한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맹물로 자동차가 간다고?” 하며 제목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습니다.



당시의 톱스타들이 나왔던 로맨스 영화 ‘맹물로 가는 자동차’의 한 장면(이형표 감독)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수소 자동차가 곧 상용화가 된다면, 맹물로도 자동차가 간다는 말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구 온난화 문제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역시 ‘공기’와 ‘물’입니다.

1979년 7월 1일

서울주보의 3면을 보면 ‘물의 묵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옵니다. 물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성경 안에서의 물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주보 내용을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

1979년 7월 1일 서울주보 3면

“생활 속의 물”
이 지구 표면에 물처럼 풍부한 것이 없다. 우리 이 물을 세가지 형태를 통해 보고 있다. 액체로서의 물, 수증기, 얼음의 형태이다.
이물은 액체의 상태에서 온갖 식물의 50~70%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간의 신체도 70%가 이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물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명을 부지해 가는데 빵보다도 물이 더욱 중요하다. 북음에도 중말에 이르러 의인으로 대접받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고 칭찬하신다.
“생과 死를 가져오는 물”
물은 확실히 삶의 근원을 이루고 힘을 부여한다.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어머니의 자궁속의





미세먼지와 공해로 시공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서울 거리. 가톨릭평화신문 제공

이 빵보다 중요하다”라는 언급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1979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은 전혀 다루어 지지 않았던 생소한 사회문제 주제였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에서 ‘환경의 문제’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현재 물은 중요한 지구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실제

로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3면이 바다지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경우는 0.8%에 불과하다고 하죠.

지구의 환경문제는 따로 떼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5년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했습니다. 이 회칙은 인류 공동의 집

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생태적 회심으로 피조물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도록 이끈 ‘21세기 생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반포되어 파리 기후협약 및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할 국제사회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오염, 쓰레기, 버리는 문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교황님은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서 “버리는 문화는 물건을 쉽게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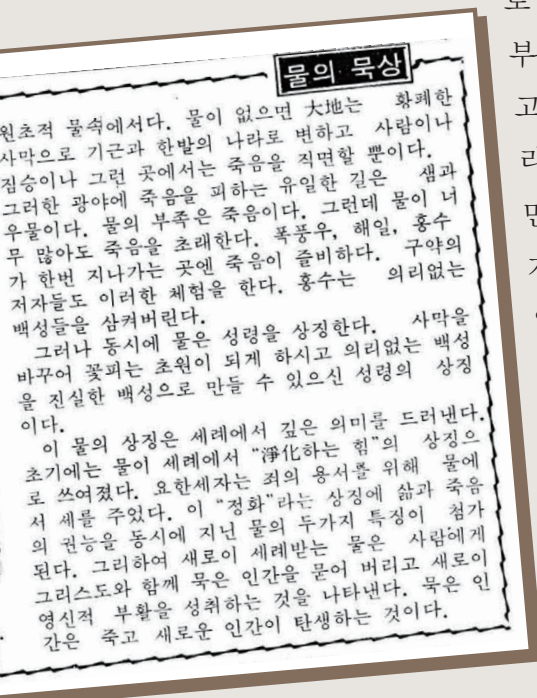
또한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최소화, 소비 절제, 효율 극대화, 재사용, 재활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사람들이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덜 탐



2011년 03월 11일 일본 북동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 여파로

미야기현 나토리(名取)에 쓰나미가 덮친 가운데 나토리 강이

범람하고 곳곳에 화재가 발생해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다. 가톨릭신문 발췌





욕적이고 더 평온하며, 덜 걱정하고 더 존중하며, 더 형제적인 또 다른 삶의 양식을 선택하도록 독려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론은 있을 수 없다”라며 생태교육의 필요성과 새로운 습관을 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산업화 이후 지구 연평균 기온을 1℃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하면 2006~2015년의 10년간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평균보다 0.8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극에서는 2~3배 더 크게 그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지금보다 0.5℃ 높아지면, 해수면 상승과 염수 침입, 홍수, 이상 기온, 생태계 파괴, 기반 시설 피해, 동식물 멸종, 열에 의한 질병 창궐 및 사망, 식량 감소 등 지구촌 피해는 이루 나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30~2052년 사이 1.5℃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명확한 대응 방법이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류가 생활방식을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상

처받은 피조물 세계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인간의 무질서한 개발과 발전의 집착으로 인한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도 우리 생활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부터 솔선수범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음식물 포장, 배달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은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 가족의 부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와 물 등 환경 자원은 결코 무한대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들어가고 있고 그 결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부터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잘 인식하고 잘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시작이 되겠지요?

인준단체 알림

모임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8박9일)

때: 2월19일(금)~27일(토)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월1일~31일 / 문의: 010-5482-3217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공복감 없는 효소단식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성체신심의 은혜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단식 효소비 포함)
때, 곳: 2월19일(금)~22일(월)·2월26일(금)~3월1일(월)·3월12일(금)~15일(월)·3월26일(금)~29일(월),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 지도: 토마스 모어 원장 신부
문의: 010-9916-5798 신부, 010-9363-7784 신 글라라

돌아보며 깨닫기 / 문의: 010-3173-2665

돌개생활 피정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최영민 신부(예수회)
혼인성소찾기 피정	다음카페: oh oh my half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5차	1월22일(금)~30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6차	2월5일(금)~13일(토)	

어르신 사발 피정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02)766-7370

죽음(선종)	1월26일(화) 10시~13시
심판·지옥·연옥·천국·성체·성모님	매일 셋째주(화) 10시~13시

가정선교회 2월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2월3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첫 토 성모 신심미사	2월6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없음, 김밥 판매, 식수 준비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교육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3월2일(화)~6일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신구약 성경통독(상지피정집)

때, 곳: 2월19일~27일(8박9일) / 문의: 010-9401-937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ICPE선교회 제자훈련 / 문의: 010-7548-6664

대상: 대학생, 청년 / 대면 혹은 비대면
때, 곳: 2월27일(토)~2022년 1월, ICPE선교회(합정동)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추가모집 안내 / 문의: 061)432-9241

원서접수: 1월18일(월)~2월3일(수)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특별 이벤트

2021년을 말씀과 함께 / 문의: 010-7470-7966

1과목 수강료로 2과목 공부를

상세 내용은 사이버성경학교 홈페이지 참조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선교아카데미 제10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 회비: 80만원(식대 포함)

때, 곳: 3월4일~9월30일 매주(목), 한국외방선교회 본부(성북동) / 문의: 02)3673-2528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월~12월(2월 예비학교) / 대상: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예수회센터 강좌(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영성과 철학상담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홍경자 교수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실시간 영상 강의(ZOOM) 매주(목) 14시~16시	권오면 신부
구역성경 아카데미	매주(목) 10시~12시	주원준박사
영어성경 나눔	매주(목) 18시15분~19시15분반, 19시30분~20시30분반	Kister 신부
'나'를 찾아가는 화목한 가정	첫째·셋째주(토) 16시~18시	손엘디, 베카타리나 부부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때, 곳: 1월18일(월) 13시~14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복음화학교 월례미사

때, 곳: 1월21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모집

2021년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38-7831

대상: 현재 9세~12세 가톨릭(예비)신자

연습: (화) 18시, (일) 13시 / 접수: 신청서 이메일 발송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 참조

연습제개 및 오디션 일시 개별 연락

인내

코메스영성상담소

영성, 그 길을 만나면 쉽고 회복이 있습니다

대면·전화·온라인상담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oin.com) 토요상담 가능

심층적 자기이해와 가족관계 성장	1월26일~3월30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자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관계문제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AMR 영성심리치유	내면아이 치유, 분노조절 외 청소년 및 성인 대상(상시)
수지메니에그램	자기 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상시)
의식성장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가치야 놀자'	개인, 가족(청소년), 소규모 팀(상시)
영어·불어성경	3월 첫째주(금·토) 개강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2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1월31일까지 접수

문의: 02)740-9708(http://songsin.catholic.ac.kr)

세검정성당 시설관리 직원 모집

분야: 관리인(계약직 2명) / 업무: 시설물 관리, 방호, 미화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문의: 02)3217-9595(내선 201·202)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월31일(일)까지 팩스(02)3217-9200), 이메일(khly88@naver.com), 우편·방문(우 03018,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38(신영동))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세탁근무자 각 0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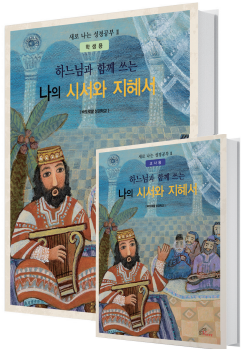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월26일(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하느님과 함께 쓰는 나의 시서와 지혜서 (학생용 · 교사용)

윤성화·윤영란 지음 | 바오로딸
학생용 140쪽 | 1만6천원
교사용 196쪽 | 1만8천원
문의: 02)944-0944

바오로딸 성경학교 교재 '새로 나는 성경공부 II'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책인 『하느님과 함께 쓰는 나의 시서와 지혜서』가 나왔다. 구약성경 시서와 지혜서에서 중요한 단락을 묵상하고 필사하는 과정을 통해 거룩한 독서를 하고 지난 시간을 성찰하며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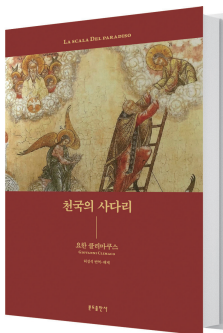


신간

주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조규만 지음
기쁜소식 | 192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원주교구 교구장인 조규만 주교가 기도에 대한 설명과 묵상을 엮어 책으로 펴냈다. 우리가 자주 바치는 일상기도를 중심으로 한글, 영어, 라틴어 등의 원 기도문과 각각의 기도문이 가지는 의미와, 어떻게 혹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바쳐야 하는지를 묵상글과 함께 자세히 설명한다.



신간

천국의 사다리

요한 클리마쿠스 지음
분도출판사 | 432쪽 | 2만5천원
문의: 02)2266-3605

이 책은 이전까지의 수도승 영성 전통을 종합한 고전으로서 수도승 영성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수도승 전통과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그 길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30개의 담화(단계) 형식으로 금욕생활과 관상 생활에 관한 풍부한 가르침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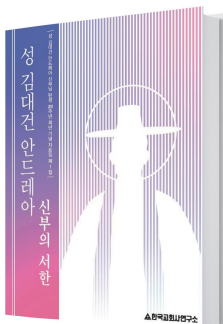


신간

성경 본문 줌인

김혜운 지음
생활성서사 | 287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번역된 성경만으로는 성경의 원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보다 깊이 있게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해 성경 원어를 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며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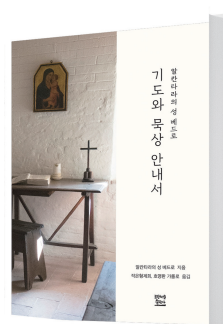


신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김대건 지음
한국교회사연구소 | 392쪽 | 2만원
문의: 02)756-1691

‘희년 기념 개정판’으로 기존의 판독 오류와 한자어 오기를 바로잡고 해제·주석·지명을 보완하는 등 새롭게 축적된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한국의 첫 사제이자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와 활동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신간

기도와 묵상 안내서

알칸타라의 성 베드로 지음
프란치스코출판사 | 294쪽 | 1만2천원
문의: 02)6325-5600

이 책은 16세기 스페인에서 나온 『알칸타라의 성 베드로 영신 수련』이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묵상책이라기보다는 내적 생활을 위한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죽음과 심판, 천당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수난에 대해 이야기한다.

❖ ❖ 기부 진시 ❖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월 1일 ~ 1월 10일 : 1,000,000원)
누계 : 1,891,404,758원

전 영 신 : 1,0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대성당 미사시간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임시 조정 (12월 8일부터 적용)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토요일		[12:00-13:00]
일요일	07:00~20:00	사무실 폐문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과년도(2017년~2020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2016년에 작성·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

·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020년 12월 8일자 발령)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 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 개방을 계속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1시 ~ 오후 4시

· 김대건 성인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 11월 8일부터 개방된 지하성지는 매일 아래와 같이 개방을 계속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없음.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합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은 추후 공지 시까지 대면 수업은 중단하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은 사전 접수하신 명동 교적신자 15명으로 제한됩니다.

[☞ 미사 참례 사전 접수 방법은 후보 바깥 면,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미사 참례 지침' 본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타 교적 신자분들은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참례 사전 접수하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성전 입장 전 손 세정제로 소독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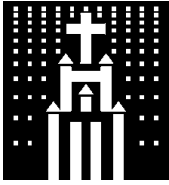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미사 참례 지침 안내 (※1월 17일 현재)

단 계	미사 참례 지침
1단계	1~2미터 간격을 두고 띄어 앉기
1.5단계	좌석수의 3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400명)
2단계	좌석수의 20% 입장 (☞ 대성전 기준, 약 250명)
2.5단계	비대면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을 위한 인원(19인) 입장 (☞ 이 중 신자는 15명으로 제한)
3단계	비대면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주례자+스태프)만 입장

※상기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본당 미사 참례 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보 발행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시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2.5단계 이상 상황에서는 홈페이지 하단 유튜브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사목협의회 제 단체 정기 감사

본당 사목협의회 제 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 감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오니 결산 자료를 구비하시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 본당 모든 단체 (※자체 운영 단체도 포함)

·제출서류 : ① 수입지출 현황 명세서

② 장부 사진(19년 12월 & 20년 12월)

③ 통장 사진(19년 12월 & 20년 12월)

·제출기한 : 1월 17일(주일)까지

·제 출 처 : psw0424@hanmail.net

◎ 명동대성당 미화원 모집

·대상 :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로서

청소 담당계약직 미화원 1명

·서류 : ① 천주교 서울대교구 본당 입사지원서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에서 다운로드)

②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타 교구 신자는 '주임사제추천서'로 대체)

③ 교적증명서

·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합격자 개별 통보)

·접수 : 1월 17일(주일) 오후 6시까지

사무실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1월 17일(주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전화문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 초 축성 및 봉헌 》

2월 2일(화)은 「주님 봉헌 축일」로 당일 오전 7시 미사 때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초를 축성 받으실 분들은 제대에 마련된 장소에 초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동안 미사에 사용될 제대초를 봉헌 받습니다. 제대초를 봉헌해주시 개인이나 단체는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 》

2월 12일(금) 「설」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에 미사 예물 접수하실 분들은 2월 10일(수)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설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 설 연휴 기간 고해성사 및 본당 사무실 휴무

2월 11일(목)~13일(토)은 상설 고해성사가 없고, 본당 사무실은 11일(목)~12일(금) 휴무입니다.

※ 본당 사무실은 13일(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근무

※ 평일미사는 기존과 같이 봉헌됩니다.

◎ 2021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입

어려우신 중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이어 2021년도 교무금 책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본당 신년 달력과 가정기도문 책자를 드립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

오는 1월 18일(월)부터 25일(월)까지 일주일 간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4-1/10).....18,551,000
· 구유예물 (1/4-1/10).....2,310,260
· 주님 세례 축일 헌금.....1,891,000
· 감사헌금 (1/4-1/10).....1,410,000

강 요한 / 권 스테파노 / 김 로사
김 아가이나 / 서 세실리아 / 안 플로라
윤 마태오 / 이 마리아 / 장 파비올라
조 마리아막달레나 / 최 안나